

답은 그림 찾기 같은 수채화

November 23, 2023 | 김슬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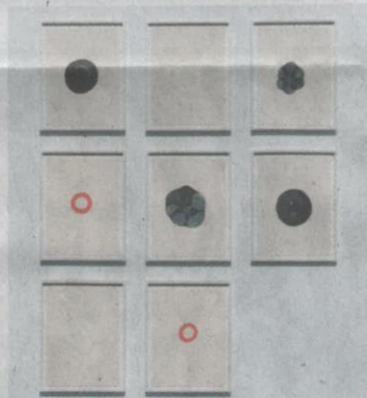
Page 1 of 1

답은 그림 찾기 같은 수채화

로니 혼 국제갤러리 개인전
사물의 관계성을 고찰한
추상 드로잉 15점 전시

전시장에 '네쌍둥이'가 걸렸다. 미생물같기도 하고, 도넛이나 공처럼 보인다. 쌍둥이 그림들은 닮았지만, 자세히 보면 미묘하게 다르다. 도형 모양의 추상적 작품에는 물감 자국이나 연필 자국이 남아 있기도 하다. 8점의 그림이 이루는 조화와 변주는 작품 앞을 금세 떠날 수 없게 만든다.

아이슬란드 빙하 모양의 유리 조각으로 전 세계 컬렉터들의 사랑을 받아 온 미국 현대미술가 로니 혼(68)의 소박한 개인전이 열린다. 4500kg에 달하



'Frick and Fracks'

국제갤러리

는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와는 달리 가볍고 농담 같은 종이 드로잉을 소개한다.

12월 31일까지 열리는 국제갤러리에서의 5번째 개인전 '프릭 앤 프랙스(Frick and Fracks)'에서 2018~2023년 제작한 수채화 연작 15점을 선보인다. 윤혜정 디렉터는 "같은 대상을 2번 보는 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작업들이다. 작가는 답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내게 하는 일이 무엇이나 묻는다면, 나는 그리는 사람이라 하겠다"고 할 만큼 드로잉은 로니 혼 작업의 주축을 이루는 작업이다. '프릭 앤 프랙스' 연작에서 작가는 쌍을 이루는 것, 이중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을 이어간다. 이 같은 관계성에 대한 고찰은 사진에서 조각에 이르기까지 그의 다양한 작업에서 공통적으로 엿볼 수 있다. 김슬기 기자